

정책자료 2013-186

한국기업 중국 현지법인의 생산성 연구

이시영 · 이재민 · 이상학 · 김대영 · 하병기

2013. 9.

차 례

제1장 서론	7
제2장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추이와 현황	11
1.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추이와 현황	11
(1) 대중국투자 개황	11
(2) 중국내 지역별 투자 현황	15
(3) 업종별 현황	17
(4) 투자자 규모별 현황	23
(5) 종합평가	23
2. 제조업 현지법인의 경영 현황	25
(1) 고용규모	25
(2) 경영성과	26
(3) 중국내 현지법인의 자본-노동 비율	27
(4) 중국내 현지법인의 노동생산성	28
(5) 종합평가	29
제3장 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30
1. 생산성 결정요인	30
2. 선행연구	33
(1) 노동생산성에 대한 선행연구	33
(2) 중국내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에 대한 선행연구	36
(3) 아웃소싱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선행연구	38
제4장 중국 현지법인의 노동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44
1. 실증분석 모형 및 데이터	44
(1) 연구모형 1	44

(2) 연구모형 2	50
2.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54
(1) 결과 및 함의	54
(2) 실증분석 결과 평가	6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63
1. 연구결과의 요약	63
2. 연구결과의 시사점	66
참고문헌	68

표 차례

〈표 2-1〉 연도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14
〈표 2-2〉 지역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비중(2012년 말 기준)	16
〈표 2-3〉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산업별 비중(2012년 말 기준)	18
〈표 2-4〉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현황	20
〈표 2-5〉 한국의 대중국 주요 지역별, 제조업종별 투자 현황(2012.9월 기준)	21
〈표 2-6〉 한국의 대중국 투자자 규모별 현황(2012년 말 기준)	23
〈표 2-7〉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27
〈표 4-1〉 연구모형 1 - 변수 설명	48
〈표 4-2〉 연구모형 1 -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49
〈표 4-3〉 연구모형 2 - 변수 설명	52
〈표 4-4〉 연구모형 2 -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53
〈표 4-5〉 연구모형 1 실증분석 결과(2009~2011)	56
〈표 4-6〉 연구모형 2 실증분석 결과(2005~2011)	57

그림 차례

〈그림 2-1〉 한국의 대중국투자 추이	13
〈그림 2-2〉 제조업 현지법인의 업종별 평균 고용규모(2009~2010)	26
〈그림 2-3〉 현지법인 제조업 업종별 자본-노동 비율(2009~2010년 평균)	28
〈그림 2-4〉 현지법인 제조업 업종별 노동생산성(2009~2010년 평균)	29

제1장

서론

-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법인이 많이 설립되었으며, 이들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중국내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은 궁극적으로 한국내 모기업의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
 - 이는 다시 한국의 투자와 무역 등의 국제적 분업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한국기업들이 대중국투자에 성공하여 성과를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실패사례도 증가하고 있음(김보인·신만수, 2010).
 -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결정하는 요인 중 주요 요인이 생산성임을 감안한다면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인건비 상승 및 위안화 강세 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현

지법인들의 이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같이 변화하는 중국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

- 대중국투자의 실패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학문적 관점뿐 아니라 실무적,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는 현지법인의 고용인원(파견인원 및 현지고용인원) 및 구성을 파악하여 구성 비율 대비 생산성을 측정하고,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

-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현지법인들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파견인원 및 현지고용인원 비율이 생산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지화와 생산성의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향후 중국에 진출할 기업들이 기업 전략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최근(연구모형 1)과 종합적(연구모형 2)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최근 추세를 파악하여 비교하였음.

- 두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2장에서 대중국 투자의 추이와 현황 및 현지법인의 현황을 살펴봄.
 - 연도별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고 지역별·업종별 투자를 분석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로 데모효과가 존재함을 보임.
 - 또한 중국내 현지법인의 노동생산성, 자본-노동 비율, 그리고 경영성과 등을 분석함.
- 3장에서는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함.
 - 노동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산함수를 기초로 기본식을 정리하고 아웃소싱이 어떻게 생산함수와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함.
 - 기본식을 토대로 선행연구를 주제(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중국내 현지법인과 생산성, 그리고 아웃소싱과 생산성)별로 구분하여 정리함.
- 4장은 중국내 현지법인의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함의를 제시함.
 -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기초통계량을 분석함.
 - 3장에서의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모형을 수립하고 결과를 도출함.

- 두 가지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 분석함.
- 또한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와 결과를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고 함.
-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 등을 제시함.
 - 중국내 영업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신속적인 경영능력과 대응이 필요함.
 - 중국의 최종 소비재 시장은 아직 미국이나 EU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나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중국 중간재 시장 자체가 세계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내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시장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음.
 - 앞으로 우리 현지법인들의 경쟁력은 현지화 여부, 자본집약적인 생산공정 그리고 현지로부터 우수한 부품조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제2장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추이와 현황

1.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추이와 현황

(1) 대중국투자 개황

- 20세기 후반부터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해외직접투자(FDI)가 급증하고 있음.¹⁾
 -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최근에는 한국 금융기관들도 해외(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특히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급증하면서, 대중국투자가 많이 이루어

1)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분류함.

어짐.

- 세계경제에서 미국과 더불어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생산성 대비 저렴한 노동비용 및 한국과의 생산구조(production structure)의 보완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가 급증하였음.

○ 2012년 말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누적금액은 총 393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금액 2,151억 달러의 18.3%에 달함.

- 20%를 상회하는 대중 교역의 비중에 비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중국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여 현지법인 수로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현지법인의 41.8%를 점하고 있음.

○ 대중국 직접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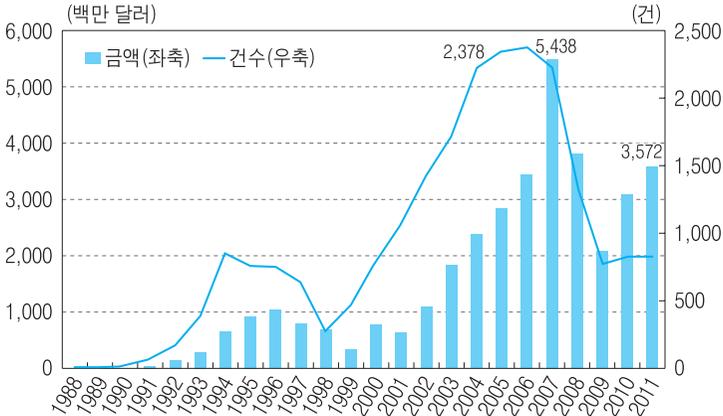
- 전체 제조업투자 중 대중국투자 비중은 2003년 65.2%까지 상승하였다가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중 제조업투자는 누적 투자금액 309억 달러로 전체 제조업투자 806억 달러의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투자 비중 18.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²⁾

-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대중투자 중 제조업투자는 78.6%의 비

2) 2012년 말 기준으로 제조업 투자대상국 2위인 미국에는 107억 달러, 3위 베트남에는 45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였음.

〈그림 2-1〉 한국의 대중국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중에 달함.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누계 55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며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음(투자유치국의 유인 측면).
 - 한국경제의 노동비용의 증가, 높은 지가와 같은 제반비용 증가 등에 대응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로 대중투자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투자자 측면).
 - 중국은 2003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2007년 53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던 대중국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2-1〉 연도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투자금액(백만 달러)
1988	0
1989	6
1990	16
1991	42
1992	141
1993	264
1994	641
1995	842
1996	942
1997	781
1998	681
1999	349
2000	757
2001	646
2002	1,079
2003	1,791
2004	2,368
2005	2,818
2006	3,439
2007	5,268
2008	3,764
2009	2,169
2010	3,619
2011	3,571
2012	3,306
총계	39,30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실제투자금액 기준으로 신고금액과 차이가 있음.

- 투자 위축은 세계경제의 부진,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변화, 중국 노동비용의 증가 등에 따른 투자유인 축소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실시된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책 초점을 '양적' 외자유치에서 '질적' 외자유치로 전환함.
- 단순 조립가공 생산 분야보다 첨단디자인, 연구개발 및 현대적 유통 분야를 선호하며, 효율성 제고와 환경보호를 강조함.
- 낙후된 중부 및 서부 지역을 개발함과 동시에 동부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과 부합하는 방향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2) 중국내 지역별 투자 현황

- 한국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의 80% 이상이 동부 연해지역에 이루어짐.
 - 강소성(23%), 산둥성(2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경시(12%), 요녕성(9%), 천진시(8%), 상해시(7%) 등에 대한 투자도 활발함.
 - 타 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 중국의 경제성장이 동부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경제에서 이들 지역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투자도 이들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됨.
 - 한국 및 세계와의 접근성도 투자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표 2-2〉 지역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비중(2012년 말 기준)

	투자액(백만 달러)	비중(%)
강소성	8,949	22.6
산둥성	8,885	22.4
북경시	4,935	12.4
요녕성	3,514	8.9
천진시	3,053	7.7
상해시	2,628	6.6
광둥성	1,915	4.8
절강성	1,423	3.6
길림성	854	2.2
호남성	574	1.4
하북성	493	1.2
섬서성	393	1.0
강서성	331	0.8
흑룡강성	328	0.8
사천성	241	0.6
복건성	227	0.6
자치구	216	0.5
산서성	193	0.5
안휘성	163	0.4
호북성	119	0.3
하남성	86	0.2
해남성	70	0.2
감숙성	34	0.1
운남성	32	0.1
귀주성	18	0.0
청해성	2	0.0
총계	39,677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는 동일 일자에(2013.3.2.) 접근하였으나 집계과정에서의 오차 및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총계는 〈표 2-1〉과 다소 차이가 있음.

로 평가됨.

- 대기업의 경우 감소성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산동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특성, 업종특성 및 투자동기의 차이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됨(김대영·이시영, 2012).

(3) 업종별 현황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³⁾
- 제조업 중심으로 대중국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현지의 낮은 임금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업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는 것임.
 - 한국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이 중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중국정부도 제조업 분야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임.
- 최근 들어 서비스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도·소매업은 5.2%, 금융 및 보험업 4.1%, 부동산 임대업 3.5%, 건설업 2.1%를 기록함.

3) <표 2-1>의 총계 39,302백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78.6%이며, <표 2-3>의 총계 39,677백만 달러 기준으로는 77.9%임.

○ 도·소매업의 경우 투자 건수는 많으나, 개인 중심의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서 금액기준 비중이 낮게 나타남.

- 도·소매업은 소매업이 59%,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36%를 차지함.

- 직접투자 초기에는 제조업의 판매법인 형태로 진출이 이루어졌

〈표 2-3〉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산업별 비중(2012년 말 기준)

	투자금액 (백만 달러)	비중 (%)
건설업	829	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0
광업	265	0.7
교육 서비스업	32	0.1
국제 및 외국기관	15	0.0
금융 및 보험업	1,627	4.1
농업, 임업 및 어업	118	0.3
도매 및 소매업	2,080	5.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	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76	3.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9	0.2
숙박 및 음식점업	512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45	0.6
운수업	394	1.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8	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6	1.9
제조업	30,910	77.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74	0.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2	0.3
총계	39,677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총계는 〈표 2-2〉와는 일치하나 〈표 2-1〉과 다소 차이가 있음.

으나, 2006년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임.

-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는 2000년 이후 투자가 시작되어 2005년 손해보험사의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이후 은행권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중국정부의 투자 개방이 제조업보다 늦은 데다가 아직 정부의 규제가 많아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다양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투자 제약으로 인하여 광업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음.
- 건수 기준으로 2006년 제조업이 66.4%에서 2011년 52.0%로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20.3%에서 36.0%로 증가하였음.
 - 금액 기준으로도 제조업이 2006년 84.2%에서 2011년 77.6%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8.9%에서 18.0%로 증가하였음.
-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동차산업이 13%를 기록함.
 - 이들 산업은 한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임.
 - 일반기계가 7%, 1차 금속 제조업이 5%, 금속 가공업이 5%를 차

〈표 2-4〉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직접투자 현황

	투자금액* (백만 달러)	비중(%)		
		전체*	1988~ 2000	2001~ 2012.9
1차 금속 제조업	1,675	5.4	4.3	5.8
가구 제조업	105	0.3	0.5	0.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16	1.3	3.2	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06	3.9	3.9	3.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650	5.3	8.7	4.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48	6.9	3.6	7.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95	3.9	0.3	4.6
기타 제품 제조업	875	2.8	5.0	2.4
담배 제조업	0	0.0	0.0	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94	0.3	0.7	0.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272	4.1	9.4	3.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03	4.2	8.1	3.7
식료품 제조업	1,114	3.6	4.5	3.5
음료 제조업	154	0.5	0.0	0.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27	1.4	1.4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0	0.3	0.5	0.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54	3.7	7.6	3.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9	0.1	0.0	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977	12.9	8.3	12.9
전기장비 제조업	763	2.5	1.8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028	29.2	21.1	3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3	0.4	0.0	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8	0.6	1.5	0.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936	6.3	5.7	6.5
총합계	30,910	100	100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 2012년 말 기준.

〈표 2-5〉 한국의 대중국 주요 지역별, 제조업종별 투자 현황(2012.9월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한국 전체	산동성	강소성	북경시	요녕성	상해시
섬유	1,287 (4.3)	336 (4.4)	456 (5.6)	5 (0.2)	61 (2.9)	15 (1.3)
의복	1,149 (3.9)	511 (6.7)	97 (1.2)	28 (1.3)	146 (7.0)	170 (15.0)
신발	412 (1.4)	311 (4.1)	17 (0.2)	0 (0.0)	19 (0.9)	3 (0.3)
화학	2,107 (7.1)	250 (3.3)	423 (5.2)	226 (10.5)	95 (4.6)	92 (8.1)
고무/플라스틱	1,158 (3.9)	248 (3.3)	480 (5.9)	20 (0.9)	16 (0.8)	14 (1.2)
1차 금속	1,664 (5.6)	373 (4.9)	574 (7.0)	160 (7.4)	173 (8.3)	12 (1.1)
금속제품	1,615 (5.4)	391 (5.2)	291 (3.6)	80 (3.7)	187 (9.0)	47 (4.1)
전기전자	8,515 (28.7)	1,243 (16.4)	3,768 (46.1)	237 (11.0)	250 (12.0)	160 (14.1)
정밀기기	414 (1.4)	94 (1.2)	75 (0.9)	14 (0.6)	26 (1.2)	42 (3.7)
전기장비	739 (2.5)	208 (2.7)	322 (3.9)	23 (1.1)	31 (1.5)	20 (1.8)
일반기계	3,276 (11.0)	1,319 (17.4)	423 (5.2)	175 (8.1)	639 (30.7)	98 (8.6)
자동차	3,619 (12.2)	872 (11.5)	938 (11.5)	960 (44.5)	216 (10.4)	113 (10.0)
기타 제품 제조업	3721 (12.5)	1430 (18.9)	315 (3.9)	231 (10.7)	220 (10.6)	346 (30.5)
총합계	29,677 (100.0)	7,585 (100.0)	8,181 (100.0)	2,159 (100.0)	2,082 (100.0)	1,134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안의 숫자는 비중(%)을 나타냄.

지하고 있어 기계 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음.

-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이러한 대기업 진출은 관련 협력업체들의 동반진출을 유발하여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투자비중을 확대시킴.

- 이는 김대영·이시영(2012)이 제기한 데모효과(demonstration effect)가 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일반기계 관련 산업의 경우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액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및 섬유 제조업 등의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이는 대중국투자 초기에는 낮은 임금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반영함.

- 2001년 이후에는 대기업 중심의 주력 산업 진출이 본격화됨.

- 자동차 산업의 직접투자 비중은 2000년 이전 8% 수준이었으나, 2001년 이후 13%로 증가함.

-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에는 비중이 2000년 이전까지 21%였으나, 이후에는 30%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함.

- 2001년 이후 중국의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 내수 시장을 확보하려는 주력 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4) 투자자 규모별 현황

- 투자자 규모별로는 금액 기준으로 대기업이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33%를 기록함.
- 신규 법인 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53%, 대기업이 6%를 차지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건당 투자금액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5) 종합평가

-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중국의 WTO 가입(2001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연간 50억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음.

〈표 2-6〉 한국의 대중국 투자자 규모별 현황(2012년 말 기준)

	투자금액 (백만 달러)		신규 법인 수	비중(%)
	비중(%)	비중(%)		
대기업	24,658	62.1	1,384	6.1
중소기업	13,023	32.8	12,007	53.2
기타(개인, 개인기업, 기타 비영리단체)	1,996	5.0	9,166	40.6
총합계	39,677	100.0	22,557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대중국투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투자증가가 촉발된 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임.
- 또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원화 강세, 대기업의 글로벌 경영체제 확립, 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저임활용의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급증하게 됨.
- 대중국투자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국내 핵심 대기업의 진출로 관련 기업의 동반진출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이는 김대영·이시영(2012)의 논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데모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업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임.
- 투자지역별로는 강소성, 산둥성, 북경시, 요녕성, 천진시 등 동부 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강소성에는 현지에 형성된 IT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려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짐.
 - 산둥성에는 저임금 요소를 활용하기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짐.
 - 북경시에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진출과 함께 관련 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진출이 활

발하게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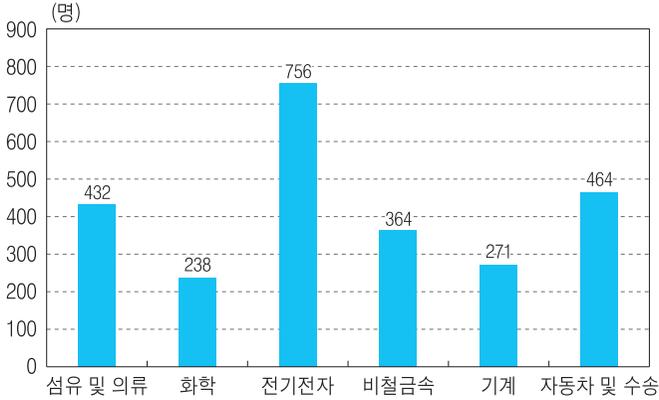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시장성에서는 상해시가 더 유리하지만 금융감독기구가 위치한 북경에 우선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요녕성에는 저임금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 관련 업체의 진출이 활발함.
- 천진시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에 저임을 활용하려는 투자가 활성화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투자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 상해시에 대한 투자는 소비지역으로서 소비재 산업의 진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상황임.

2. 제조업 현지법인의 경영 현황

(1) 고용규모

- <그림 2-2>는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중국내 현지법인기업의 평균 고용인원 규모를 나타냄.
 -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기전자산업의 고용인원이 가장 많으며 섬유 및 의류와 자동차 산업이 그 뒤를 따름.
 - 반면 기계나 화학 업종이 상대적으로 고용인원이 적은 편임.→

〈그림 2-2〉 제조업 현지법인의 업종별 평균 고용규모(2009~201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이는 장치산업(裝置産業)의 특성을 지닌 세부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2) 경영성과

○ 〈표 2-7〉은 중국내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국 현지법인들의 전체 자본효율성과 제조업종만의 자본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의 자본효율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영업이익 평균값도 제조업이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연도별로 제조업의 2009년도 자본효율성이 더욱 높은 것

〈표 2-7〉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N	매출/자본 비율	영업이익(달러)
		평균	평균
전체기업	6,569	4.22	2,089,568
제조업	4,288	4.75	2,517,793
제조업-2009	1,116	6.34	3,246,837
제조업-2010	1,197	1.98	3,935,63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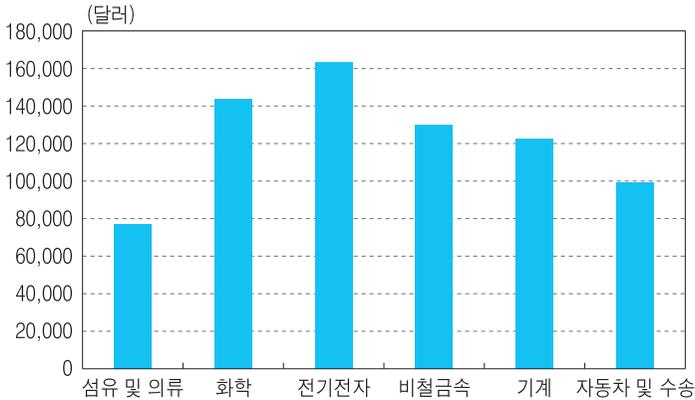
으로 나타났음.

- 영업이익의 큰 변화는 없으나 2010년도에는 중국경제의 침체로 매출/자본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자본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3) 중국내 현지법인의 자본-노동 비율

- 〈그림 2-3〉은 중국내 현지법인의 자본-노동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전기전자산업의 자본-노동 비율이 가장 높고 섬유·의류 산업의 자본-노동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기전자산업이 자본집약적인 반면 섬유·의류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판명됨.
 - 또한 화학, 비철금속 및 기계 산업도 자본집약적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3〉 현지법인 제조업 업종별 자본-노동 비율(2009~2010년 평균)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자본-노동 비율은 “자본총계/총고용 수”를 의미함.

(4) 중국내 현지법인의 노동생산성

- 〈그림 2-4〉는 제조업 업종별로 현지법인의 노동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음.
- 예상 외로 전기전자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비철금속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자본-노동 비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비철금속산업에 비해 낮은 이유는 산업특성상 자본과 노동 모두 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됨.
 - 섬유 및 의류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편이고 기계산업도 노동생산성이 낮게 나타남.

〈그림 2-4〉 현지법인 제조업 업종별 노동생산성(2009~2010년 평균)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노동생산성은 “총매출액/총고용 수”를 의미함.

(5) 종합평가

- 제조업 업종별로 현지법인의 고용규모, 경영성과, 자본-노동비율 및 노동생산성 등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
- 이러한 격차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는 대중국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제3장

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1. 생산성 결정요인

- 본 연구에서는 현지법인의 고용인원(파견인원 및 현지고용인원) 및 구성을 파악하여 구성 비율 대비 생산성을 측정하고,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지법인들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들어 인건비 상승 및 위안화 강세 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들의 이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법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시의성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생산성은 노동의 평균생산(average product of labor)을 의미함.

- 평균생산은 총산출량을 고용인원 수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근로자 1인당 평균적으로 생산한 양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 리카르도(Ricardo) 이론에 따르면 노동의 상대 생산성은 국가산업의 비교우위를 결정하고 무역패턴도 함께 결정함.
 - 즉, 해당 국가들은 상대적 노동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비교우위에 따라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되므로 노동생산성은 결국 무역패턴도 결정하는 것임.
 - 이와 같이 노동생산성은 경제와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 노동생산성은 아래의 기업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측정⁴⁾할 수 있음.

$$Y_i = A_i F(K_i, L_i)$$

- 여기서 A_i 는 기업의 기술수준(level of technology)을 나타내며 K_i 와 L_i 는 기업 i 의 자본과 노동투입을 나타냄.
- 이와 같은 기업의 생산함수에 대하여 자연로그를 취하면,

$$y_i - l_i = \alpha_i + \beta_1(k_i - l_i) + \beta_2 l_i \quad (1)$$

- (1)의 좌변은 노동생산성을 의미하고 우변의 변수로는 기술수

4) 여기서 제시한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수식과 분석은 Olsen(2006)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것임.

준과 자본-노동 비율이 있음.

- (1)에 의하면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변수는 기술수준과 자본-노동 비율인데 기술수준이나 자본-노동 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노동생산성도 증가하게 됨.

○ 최근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아웃소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의 효과는 생산함수의 생산기술을 통하여 발현된다고 가정하고 있음.

- (1)에서 아웃소싱에 의하여 선형 로그(log linear)의 절편이 이동(shift)한다고 표현할 수 있음.

- 이 경우 아웃소싱이 포함된 노동생산성 식은,

$$y_i - l_i = \alpha_i + \beta_1(k_i - l_i) + \beta_2 l_i + \beta_3 x_i^m + \beta_4 x_i^s + \epsilon_i \quad (2)$$

- (2)에서 x_i^m 은 재화 아웃소싱 x_i^s 는 서비스 아웃소싱을 지칭하며 ϵ_i 는 오차항을 의미함.

- 이론적으로 β_3 와 β_4 는 정(+)이나 음(-)의 부호를 가질 수 있고 기존 연구에서도 종종 서로 상반된(conflicting) 부호가 나옴.

- (2)를 기본(benchmark) 식으로 사용하지만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고유 특성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함.

- 그렇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특성(예를 들어 기업의 사이즈나 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노동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고 있음.

2. 선행연구

(1) 노동생산성에 대한 선행연구

- 노동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생산성 차이를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과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으로 양분되어 있음.
 - 거시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론에서 생산성을 함께 논의하는 경향이 있음.
 - 한편 거시적 지역별 생산성 차이를 연구하는 논문들은 거시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이윤수(2011)에서는 미국 제조업의 지역별 생산성 차이를 미국 통계청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총노동생산성 증가를 존속사업체의 생산성 증가,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에 의한 효과, 그리고 존속사업체 간의 재배분 효과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음.⁵⁾
 - 이러한 거시적 분석을 선호한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는 기업데이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됨.

5) 이윤수(2011)는 이 중에서 재배분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기업데이터를 입수하기가 수월해지면서 미시적 접근을 사용한 연구가 늘고 있는 추세임.
- 거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산업별 생산성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함.
 - 박석호와 김호남(2012)은 조선산업, 장진숙 & 지홍민(2011)은 증권산업, 정선영(2011)은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을 연구함.
 - 또한 박문수(2009)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동요인에 대하여 분석함.
 - 예를 들어 박문수(2009)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과 고용변화 간 상호효과를 측정하는 교차효과가 음(-)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서 Baumol's disease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세은과 도이야스히로(2012)는 동아시아 주요 8개국 제조업 생산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함의를 도출하였음.
- 해외에서 유입되는 FDI,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김기홍(2012)과 Jovoric(2004)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FDI가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Buckley, Clegg, and Wang(2002)는 FDI 기업이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함.

- Meyer and Sinani(2009)는 메타(meta)분석을 통하여 FDI의 낙수효과(spillover effect)를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함.
 - Chang and Xu(2008)와 Wang and Zhao(2008)는 외국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낙수효과를 분석하였음.
- 이와 같이 FDI 관련 논문은 주로 산업별 생산성 측정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FDI의 낙수(spillover)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음.
- 이 중에서 Chang and Xu(2008)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이 많아질수록 산업 내 지역 기업들(local firms)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실증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
 - 특히, 중국정부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지역기업에 대한 낙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도 미시적 접근을 사용한 연구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음.
-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현지법인의 노동생산성이기 때문에 현지법인 생산성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국한하여 상세한 분석을 실시함.
- 다음 절에서는 현지법인의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최근 아웃소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을 통한 아웃소싱은 세계적으로 중요함.

-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서는 아웃소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

(2) 중국내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에 대한 선행연구

- 본 연구에서는 중국내 한국 현지법인의 생산성이 연구의 초점임.
 - 대중국투자에 성공하여 성과를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실패사례도 증가하고 있음(김보인·신만수, 2010).
 - 중국내 한국 현지법인의 대한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그리고 수출·수입과 생산성을 연계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
 - 김보인·신만수(2010) 및 함정오(2012)는 한국기업의 중국내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음.
- 김보인·신만수(2010)는 2006년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1234개의 제조업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 경영성과는 매출/자본 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자산이익률(ROA)로 측정하였음.
 -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업종, 투자자 규모, 한국지분율, 진출연차, 총투자액의 5개 변수를 이용하였음.
 - 매출 기반 성과측정에서는 투자자가 대기업일수록, 진출연차가 길수록, 투자규모가 적을수록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 기반 성과측정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해 진출연차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총자산이익률에는 업종과 진출연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측정되었음.
- 함정오(2012)는 KOTRA의 중국내 현지법인에 대한 Grand Survey (2010)자료를 활용하여 중국내 한국계 현지법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 모기업이 대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좋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중국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이 성과창출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함.
 - 또한 함정오(2012)에 의하면 투자입지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음.
 -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 입지한 현지법인의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이전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이후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성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현지에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경우 경영현지화 수준이 높아져서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진·류성민(2012)은 한국계 중국 현지법인의 인사관리정책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상당히 세부적인 주제로 중국 현지법인의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연구하였음.

- 그러나 이용진·류성민(2012)의 연구에서는 기업 수가 103여 개 불과하여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약이 있음.
- 또한 세부적인 영향만을 분석하였는데, 예를 들어 인사관리정책의 본사와 유사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3) 아웃소싱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선행연구

- 최근 들어 아웃소싱 관련 무역이 급증하면서 생산성을 아웃소싱 수출입과 연계한 연구가 다수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아웃소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로 상충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대다수 중국 현지법인은 아웃소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아웃소싱이 현지법인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중국내 한국계 기업들의 아웃소싱과 생산성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연구결과에 따라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사료됨.
- Gima and Gorg(2004)는 영국기업 데이터로 아웃소싱과 생산성의

연관성을 측정하였음.

- 임금수준과 아웃소싱이 정(+)³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들이 아웃소싱하는 이유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기(motive)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 그러나 Gimma and Gorg(2004)에서는 기업들의 아웃소싱을 구분하지 않고 아웃소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세분화된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Liu and Tung(2005)은 대만 수출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출아웃소싱이 어떻게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음.
- 이들의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수출아웃소싱과의 인과관계(causality)를 설정하여 분석함.
 - 수출아웃소싱은 간접적인 수출로 FDI가 수출아웃소싱과 연관이 없으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음.
 - 대만과 중국의 inter-connection이 앞에서 언급한 모든 변수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수출아웃소싱 간 연관성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수출지향적(export-oriented) 국가들에게는 중요한 연구임.
 - 그러나 대만과 중국은 동일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고 두 국가 간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결과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Marin(2005)은 동유럽에 투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내 무역을 분석하였음.

-부패지수와 무역비용(trade cost)이 동유럽으로부터 기업내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

-기업의 조직(organizational) 비용이 낮거나 지체(hold up problem) 비용이 높을수록 기업들은 해외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국내아웃소싱보다는 해외아웃소싱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Olsen(2006)은 해외아웃소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전반적인 서베이 논문임.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해외아웃소싱이 어떻게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재 해외아웃소싱이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대부분의 문헌연구에서 실증분석 결과로 지지하고 있음.

-반면 서비스 해외아웃소싱인 경우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됨.

-일반적으로 재화아웃소싱이 서비스아웃소싱보다 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서비스아웃소싱의 경

우 언어장벽이나 다른 무역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 Kasahara and Lapham(2008)은 칠레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산성과 수출입과의 연관성을 측정하였음.
 - 실증분석 결과, 수출입이 기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기업의 생산성이 높고 운송비가 낮은 기업일수록 수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 다양한 운송비와 생산성이 수출 혹은 수입 기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
 - 특히, 수출과 수입은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여 수입 제한 정책이 수출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연구는 현지법인이나 자회사와의 상호작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고려하지 않았음.
- Lin and Ma(2008)는 한국 3단위 SIC 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자재 아웃소싱(material outsourcing)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중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이 증가하면서 원자재아웃소싱 정도 (impact of material outsourcing)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서비스아웃소싱의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음.
 -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한국기업들이 언어장벽(language

barrier)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있음.

- 언어장벽과 같은 거래비용 때문에 서비스아웃소싱이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기는 어렵다고 추정되나 생산성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Amiti and Wei(2006)는 서비스아웃소싱이 서비스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함.

○ Onuh, Zhang, and Lee(2011)는 필리핀의 자유무역지역(Special Economic Zone)인 Cavite에 위치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측정한 연구임.

- 이 연구의 가장 큰 공헌은 아웃소싱을 해외아웃소싱과 국내아웃소싱으로 구분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는 데 있음.

-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해외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생산성에 긍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외국기업과 필리핀기업들은 필리핀 국내아웃소싱(domestic outsourcing)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음.

- 영업기간이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해외아웃소싱과 수출규모에 정(+)의 관계가 가지고 있다고 측정. → 수출하는 기업일수록 해외아웃소싱으로 중간재를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기업의 고정비용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아웃소싱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음.
- 그러나 이 연구는 매출구조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아웃소싱과 국내아웃소싱 간의 관계만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제4장

중국 현지법인의 노동생산성 결정 요인 분석

1. 실증분석 모형 및 데이터

(1) 연구모형 1

1) 데이터

- 연구모형 1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3년간 중국 현지법인 3,729개 기업 자료를 근거하여 분석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추세를 보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연구범위를 설정하였음.
- 연구범위는 제조업에 국한하였는데,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 실질적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자본금이 0인 기업이나 총고용 수가 0 혹은 매출액이 0인 기업은 제외함.

- 분석에 필요한 통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로, 분석에 포함된 전체 표본 수는 2,624개임.

2) 연구모형

- 중국 현지법인 노동생산성 결정요인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3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립하였음.
 - 특히, Liu and Tung(2005), Marin(2005), 그리고 Onuh, Zhang and Lee(2011)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였음.
 - 위에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노동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였음.
 - 본 연구 역시 노동생산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유사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음.
- 종속변수는 중국 현지법인 노동생산성에 자연로그(natural logarithm)를 취하여 설정하였음.
 - $\ln(\text{총매출액}/\text{총고용})$
- 설명변수는 크게 4개의 분류로 구축하였음: 현지법인 특성변수, 학습효과, 모기업 특성변수, 매출/매입 구조 변수
- 현지법인의 기업 특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량화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음.

- ① 현지법인의 기업규모 : 총고용인원 수
 - ② 현지법인의 재무구조 : 현지법인 부채비율
 - ③ 자본/노동 비율
 - ④ 현지화 정도 : 현지고용인 비율
- 학습효과변수의 경우, 김보인·신만수(2010)는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는 진출연차가 길수록 높다고 주장함.
- 김보인·신만수(2010)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효과를 다음과 같이 모델에 구축하였음.
- ① L-effect : 현재 연도-영업개시 연도
 - ② L-effect² : (현재 연도-영업개시 연도)²
- 모기업의 특성변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투자자의 기업규모 혹은 투자자 지분율은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기업의 특성변수를 아래와 같이 구축하였음.
- ① 모기업의 투자지분율
 - ② 모기업의 기업규모 : 더비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1), 대기업의 경우 (0)으로 설정하였음.
- 기업들의 매출구조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해외 및 국내 아웃소싱과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의 구조에서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지법인의 매출/매입 구조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음.

- ① 현지법인의 전체 매출에서 수출을 통한 매출비중
- ② 현지법인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내 관계회사를 비롯한 전 세계 관계사로의 매출비중

-현지법인의 매출에서의 수출비중과 관계사 매출비중 간 상관관계 수는 58.2%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현지법인의 매입구조는 원자재 조달을 어디로부터 하는가가 중요하고 이는 기업의 생산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입구조를 계량화하여 구축하였음.

- ① 현지법인의 전체 매입에서 중국 현지로부터의 매입비중
- ② 현지법인의 전체 매입에서 중국내 관계회사를 비롯한 전 세계 관계사로부터의 매입비중

- 부채비율과 현지고용인 비율은 첨도(kurtosis)가 높아 1을 더하여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모델에 적용하였음.

-부채비율의 첨도는 116.05로 나타났으며, 현지고용인 비율의 첨도는 71.49로 높게 나타남.

- 최종분석 표본 수는 총 2,624개 기업을 분석하였음.
- <표 4-1>은 [연구모형 1] 변수들의 정의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음.

〈표 4-1〉 연구모형 1 - 변수 설명

	변수	정의
종속변수	LN Productivity	log(현지법인 매출액/현지법인 전체 종업원수)
설명변수	LN F-Size	log(현지법인 전체 종업원수)
	LN CapLab	log(현지법인 자본금/현지법인 전체 종업원수)
	Ownership	현지법인에 대한 한국투자기업(모기업)의 지분율
	LN Debt	log(현지법인 부채비율+1)
	LN Cemp	log(현지인 종업원수/전체 종업원수)+1
	L-Effect	현재 연도-현지법인 영업시작 연도
	L-Effect ²	현재 연도-현지법인 영업시작 연도 ²
	Msize	Dummy_한국투자기업규모 (대기업=0, 중소기업=1)
	S-export	현지법인의 수출을 통한 매출비중
	S-affiliated	현지법인의 관계사로의 매출비중
	P-China	현지법인의 중국내 관계사를 제외한 현지 매입비중
	P-affiliated	현지법인의 관계사로부터의 매입비중

○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Panel Data)로 구성되었음.

- 따라서 현지법인의 생산성은 분석되지 않는 패널개체 특성변수 (ui)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고려할 수 있음.
- 만약, 설명변수들과 패널개체특성(ui)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확률효과모형을 채택하고, 설명변수들과 패널개체 특성(ui) 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함.
- 설명변수들과 패널개체특성(ui) 간 상관관계 분석은 Hausman

Specification Test를 통해 검증하였음.

○ 이상의 과정을 거쳐 수립한 [연구모형 1]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text{Ln Productivity}_{it} = & \beta_0 + \beta_1 \text{Ln Fsize}_{it} + \beta_2 \text{Ln} \left(\frac{\text{Capital}_{it}}{\text{Labor}_{it}} \right) + \beta_3 \text{Ownership}_{it} + \beta_4 \text{Ln Debt}_{it} \\ & + \beta_5 \text{Ln Comp}_{it} + \beta_6 \text{Leffect} + \beta_7 \text{Leffect}^2 + \beta_8 \text{M}_{\text{size}_{it}} + \beta_9 \text{S}_{\text{export}_{it}} \\ & + \beta_{10} \text{S}_{\text{affiliated}_{it}} + \beta_{11} \text{P}_{\text{china}_{it}} + \beta_{12} \text{P}_{\text{affiliated}_{it}} + \mu_i + \theta_t + \varepsilon_{it} \end{aligned}$$

(i : 현지법인, t : 연도)

○ <표 4-2>는 [연구모형 1]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음.

<표 4-2> 연구모형 1 -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Ln Productivity	2624	4.99	18.32	11.30	1.44
Ln F-Size	2624	0.0	9.50	5.29	1.37
Ln Caplab	2624	0.0	16.65	10.51	1.31
Ln_Debt	2624	0.0	4.31	0.83	0.63
Ownership(%)	2624	0.0	100.0	91.07	19.95
Ln Comp	2624	0.0	0.69	0.66	0.06
Msize	2624	0.0	1.00	0.65	0.47
L-effect	2620	0.0	66.00	7.12	4.82
L-effect ²	2620	0.0	4356.00	74.06	136.11
S-export	2624	0.0	1.00	0.39	0.41
S-affiliated	2624	0.0	1.00	0.41	0.42
P-affiliated	2624	0.0	1.00	0.35	0.37
P-China	2624	0.0	1.00	0.54	0.38

(2) 연구모형 2

1) 데이터

- 연구모형 2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8,952개 현지법인 기업자료를 사용하였음.
- 연구범위는 연구모형 1과 동일하게 제조업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모델 2의 전체 표본 수는 6,334개임.

2) 연구모형

- 연구모형 2는 연구모형 1을 기초로 하여 몇 가지 변수들을 조정하여 구축하였음.
- 종속변수는 연구모형 1과 동일하게 중국 현지법인 노동생산성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설정하였음.
 $-\ln(\text{총매출액}/\text{총고용})$
- 설명변수는 연구모형 1과 동일하게 4개의 분류로 구축하였음. : 현지법인 특성변수, 학습효과, 모기업 특성변수, 매출/매입 구조변수
- 현지법인의 기업 특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계량화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음.

-기업규모 및 현지화 정도는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나, 연구모형의 1인당 자본비율은 1인당 자산비중으로 변화하여 변수를 새롭게 설정하였음.

- ① 현지법인의 기업규모: 총고용인원 수
 - ② 현지법인의 일인당 자산비중
 - ③ 현지화 정도: 현지고용인 비율
- 학습효과는 연구모형 1과 달리 최초송금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모델을 구축하였음.
- ① L-effect : 현재 연도-최초송금 연도
 - ② L-effect² : (현재 연도-최초송금 연도)²
- 모기업의 특성변수도 연구모형 1과 같이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음.
- ① 모기업의 투자지분율
 - ② 모기업 규모 :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대기업의 경우 (0), 중소기업의 경우 (1)로 설정하였음.
- 현지법인의 매출구조는 연구모형 1과 달리 아래와 같이 수출과 관계사로의 매출비중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음.
- ① 현지법인의 전체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② 현지법인의 전체 매출 중 관계사로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 현지법인의 매출에서의 수출비중과 관계사 매출비중 간 상관계수는 57.6%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현지법인의 매입구조는 연구모형 1과 달리 아래와 같이 구축하였

음. → 원자재 조달을 어디로부터 하는가의 관건이기 때문에 관계사로부터의 매입비중과 중국 현지 매입비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① 현지법인의 전체 매입에서 관계사로부터의 매입비중
- ② 현지법인의 전체 매입에서 중국 현지에서의 매입비중
- 현지고용인 비율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첨도(Kurtosis)가 높아 1을 더하여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모형에 적용하였음.
- <표 4-3>은 [연구모형 2] 변수들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음.
- 연구모형 2도 연구모형 1과 동일하게 패널데이터로 구성되었음.
 - 따라서 REM모델과 FEM모델을 고려하고 Hausman Specification

<표 4-3> 연구모형 2 - 변수 설명

	변수	정의
종속변수	LN Productivity	log(현지법인 매출액/현지법인 전체 종업원수)
설명변수	LN F-Size	log(현지법인 전체 종업원수)
	LN Tasset	log(현지법인 총자산/현지법인 전체 종업원수)
	Ownership	현지법인에 대한 한국투자기업(모기업)의 지분율
	LN Cemp	log(현지인 종업원수/전체 종업원수)+1
	LN Kext	log(모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송금액)
	L-Effect	최초송금 연도로부터 기준 연도까지의 기간
	L-Effect ²	최초송금 연도로부터 기준 연도까지의 기간 ²
	Msize	Dummy_한국투자기업규모 (대기업=0, 중소기업=1)
	S-export	현지법인의 전체매출 중 수출비중
	S-affiliated	현지법인의 전체매출 중 관계사로의 매출비중
	P-affiliated	현지법인의 전체매입 중 관계사로부터의 매입비중
	P-China	현지법인의 전체매입 중 현지 매입비중

Test를 통해 설명변수들과 패널개체 특성(ui) 간 상관관계 유무를 분석하였음.

○ 연구모형 2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text{Ln Productivity}_{it} = & \beta_0 + \beta_1 \text{Ln Fsize}_{it} + \beta_2 \text{Ln(Tasset}_{it}) + \beta_3 \text{Ownership}_{it} + \beta_4 \text{Ln Cemp}_{it} \\ & + \beta_5 \text{Ln Kext}_{it} + \beta_6 \text{Leffect} + \beta_7 \text{Leffect}^2 + \beta_8 \text{M}_{\text{size}_{it}} + \beta_9 \text{S}_{\text{export}_{it}} \\ & + \beta_{10} \text{S}_{\text{affiliated}_{it}} + \beta_{11} \text{P}_{\text{affiliated}_{it}} + \beta_{12} \text{P}_{\text{china}_{it}} + \mu_i + \theta_t + \varepsilon_{it} \end{aligned}$$

(i : 현지법인, t : 연도)

○ <표 4-4>는 [연구모형 2]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설명하고 있음.

<표 4-4> 연구모형 2 -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Ln Productivity	6334	2.44	18.32	10.90	1.56
Ln F-Size	6334	0.0	9.90	5.21	1.40
Ln Tasset	6334	2.68	17.72	11.15	1.35
Ownership	5875	0.0	100.0	91.52	19.76
Ln Cemp	6334	0.0	0.69	0.66	0.08
Ln Kext	6334	0.0	13.04	0.97	2.50
Msize	6152	0.0	1.0.0	0.67	0.46
L-effect	6331	0.0	21.00	6.09	4.16
L-effect2	6331	0.0	441.00	54.45	69.78
S-export	6334	0.0	100.00	41.43	42.39
S-affiliated	6334	0.0	100.00	43.94	43.26
P-affiliated	5285	0.0	100.00	38.58	38.69
P-China	5285	0.0	100.00	61.62	37.25

2.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1) 결과 및 함의

- 앞에서 설명한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의 실증분석 결과는 <표 4-5>와 <표 4-6>에 제시되어 있음.
- 연구모형 1의 R^2 는 33% 정도로 본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함.
 -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설명력과 유사하게 측정되었음.
 - 예를 들어 Onuh, Zhang, & Lee(2011)에서도 R^2 가 35% 정도로 측정되었음.
 - 단 OLS에서는 R^2 가 높게 측정된 반면 다른 모형에서는 대체로 30~45% 정도로 추정되었음.
- 연구모형 2의 R^2 는 63% 정도로 연구모형 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사한 선행연구들보다도 조금 높게 측정되었음.
-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실증분석 결과>

- 먼저 2009년에서 2011년을 분석한 연구모형 1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구모형 2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연구모형 1에서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임.
 - 반면 연구모형 2에서는 예전의 중국기업의 경영행태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비교우위가 노동집약적 기업에 있다고 해석됨.
 - 즉, 과거에는 주로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노동집약적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자본-노동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연구모형 1과 2 모두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
 - 이러한 결과는 현지법인이 자본집약적일수록 일인당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임.
 - 일반적으로 자본과 노동이 서로 보완적인 생산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것으로 평가됨.
- 연구모형 1에서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력(control)이 높을수록 현지법인에서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Chang and Xu(2008)에서의 결과와 유사함.
- 반면, 연구모형 2에서는 현지법인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연구모형 2에서 자료가 과거 현재 자료가 혼합되어 있어서 나온 결과로 해석됨.

○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연

〈표 4-5〉 연구모형 1 실증분석 결과(2009~2011)

변수	Panel analysis					
	Random-Effect Model			Fixed-Effect Model		
	coefficient	t-statistic		coefficient	t-statistic	
LN F-Size	-0.033	-1.40		-0.457***	6.68	
LN CapLab	0.654***	27.95		0.352***	8.21	
Ownership	0.002***	2.63		0.003***	2.92	
LN Cemp	-1.069***	-5.58		-0.674***	-3.17	
LN Debt	1.233***	34.50		0.898***	17.09	
Msize	-0.242***	-4.50		-0.018	-0.20	
L-Effect	0.061***	9.46		0.107***	10.86	
L-Effect ²	-0.0008***	-5.46		-0.001***	-8.08	
S-export	-0.146***	-2.77		0.061	0.91	
S-affiliated	-0.013	-0.28		0.054	0.96	
P-affiliated	0.0001	0.00		0.069	0.83	
P-China	-0.060	-0.83		0.101	1.22	
Constant	3.628***	9.14		8.616**	12.47	
N	2,620			2,620		
R-squared	within	between	overall	within	between	overall
	0.55	0.55	0.60	0.60	0.28	0.33
Hausman-Test	Chi-Sq. Statistic		Chi-Sq. d.f.		Prob.	
	173.22		12		0.00	

주: () 안은 t-값을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구모형 1을 통해 분석됨.

-기업의 부채비율은 기업의 공격적 투자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은 그만큼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이는 기업의 투자성향 및 시장상황이 공격적 경영을 유도할 수

〈표 4-6〉 연구모형 2 실증분석 결과(2005~2011)

변수	Panel analysis					
	Random-Effect Model			Fixed-Effect Model		
	coefficient	t-statistic		coefficient	t-statistic	
LN F-Size	0.206***	12.27		0.200***	6.68	
LN Tasset	0.957***	55.68		0.965***	31.58	
Ownership	0.001**	2.00		0.001	0.97	
LN Cemp	-0.539***	-4.05		-0.699***	-4.69	
LN Kext	0.030***	5.93		0.021***	3.66	
Msize	0.011	0.25		0.007	0.08	
L-Effect	0.174***	17.35		0.188***	15.52	
L-Effect ²	-0.007***	-12.95		-0.008***	-11.40	
S-export	-0.0007 [†]	-1.83		0.0000	-0.07	
S-affiliated	-0.0007 [†]	-1.94		0.0000	-0.22	
P-affiliated	0.0008**	2.30		0.0006	1.44	
P-China	-0.0003	-0.08		0.0004	1.07	
Constant	-1.247***	-4.14		-1.245**	-2.55	
N	4,779			4,779		
R-squared	within	between	overall	within	between	overall
	0.52	0.61	0.64	0.53	0.60	0.63
Hausman-Test	Chi-Sq. Statistic		Chi-Sq. d.f.	Prob.		
	71.02		12	0.00		

주 : () 안은 t-값을 나타내며 ***, **, *은 각각 1%, 5%, 10%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있는 업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기업의 투자를 늘리면 노동생산성도 높아짐.

○ 현지고용인원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낮아짐.

-현지고용인원 비율을 현지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현지화가 진전될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존의 상식과 약간 배치되는 결과임.

-그렇지만 현지고용인원 비율을 현지화 변수로 해석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부분 현지법인의 고용인원은 현지로부터 고용된 인원이기 때문에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기업이고 그 결과 (앞에서 설명한 논리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업의 영업연도가 길수록 노동생산성은 증가하지만 학습효과(learning effect)는 영업연도가 길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선행연구에서도 초기에 영업연도가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도 급격하게 증가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학습효과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지법인이 중국 현지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줌.

-특히, 중국의 경우 영업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빠른 영업환경 변화에 경영진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모기업의 규모(중소기업 vs 대기업)는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모기업의 규모보다는 해당 현지법인의 특성이 노동생산성에 더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연구모형 2의 추정결과에서 모기업으로부터의 기타송금액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기타송금액은 일반적으로 모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기업으로부터의 높은 기술이전(기타송금액)은 현지법인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음.

○ 현지법인의 매출 중에서 수출비중은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 모두 동일한 결과로 분석됨.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음.

-예를 들어 Kasahara and Lapham(2008)에서는 수출하는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Kasahara and Lapham(2008)의 결과는 수입과 수출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수출비중보다도 현지에서 다국적기업들에게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기업의 현지법인들은 수출비중과 노동생산성과의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됨.

○ (관계사를 제외한) 중국현지로부터의 매입비중과 노동생산성과의 관계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관계사로부터의 매입이나 매출은 노동생산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현지법인이 기업내 무역을 위하여 해외(중국)에 투자하는 제조업의 경우 부품조달의 목적이 주를 이룸.

-이 경우 자본투자가 선행되고 매입비중이나 매출비중보다도 자본-노동 비율이 더 중요하게 나타남.

-그렇기 때문에 관계사로부터 매입이나 매출은 노동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2) 실증분석 결과 평가

○ 중국내 한국계 현지법인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기업보다는 자본집약적 기업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 자료(2009~2011)를 분석한 연구모형 1에서 이러한 결과가 유의하게 분석됨.

- 중국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추세는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임.
- 특히, 업종별로 이러한 추세를 면밀히 검토하고 난 후에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
- 중국내의 영업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중국에서는 신축적인(flexible) 경영과 현지화 능력이 있는 경영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내수시장 자체는 아직 미국이나 EU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 자체가 세계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일인당 소득은 아직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최종소비재보다는 대부분 중국기업 혹은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에 중간재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에 있는 세계기업들에게 원자재 및 부품을 한국계 현지법인들이 공급할 수 있으며, 이들 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을 조달받는 것도 용이함.

- 수출비중이 생산성에 중요하지 않게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근거라고 볼 수 있음.
- 중국의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자본-노동 비율이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또한 현지채용 비율은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현지법인들의 현지채용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보다 자본집약적 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현지법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됨.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법인이 다수 설립되었으며 이들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및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짐.
- 대중국 직접투자는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제조업 현지법인이 설립되었음.
 - 재중 제조업 현지법인과 한국내 모기업 간의 투자 및 기업내무역 등은 모기업의 경영성과 및 한국의 글로벌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중국투자에 성공하여 성과를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실패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대중국투자가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볼 수도 있지만 대

중 직접투자가 정점(peak)을 지났을 가능성도 존재함.

○ 최근 들어 중국내 임금 상승 및 위안화 강세 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들의 이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현지법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중국 현지법인의 고용인원(파견인원 및 현지고용인원) 및 구성을 파악하여 구성 비율 대비 생산성을 측정하고,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경영환경과 비교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1과 2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음.

-연구모형 1은 최근(2009~2011)의 상황을 토대로 실증분석한 결과 기업의 종업원 수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연구모형 2에서는 2005년에서 2011년까지 분석한 결과 기업의 종업원 수가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과거 자료를 포함한 모형(연구모형 2)에서는 대부분 노동집약적 기업이 대중국투자를 하였고 그러한 결과가 감안되었다고 보임. →기업의 규모가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기업들이 보다 자본집약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지법인들도 자본집약적일수록 생산성이 증

가하여 기업의 규모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됨.

- 모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지배력과 노동생산성은 최근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자료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최근 아웃소싱이 증대되면서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력(control)이 높을수록 현지법인에서의 의사결정이 신속하
게 이루어져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의 데이터에서는 현지법인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
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역설적으로) 자본조달이 보다 원활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이며, 보다 생산성
이 높은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현지고용인원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 현지법인의 고용인원은 현지로부터 고용된 인원이기 때
문에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기
업이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업의 영업연도가 길수록 노동생산성은 증가하지만 학습효과
(learning effect)는 영업연도가 길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경우 영업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빠른 영업환경 변화에 경영진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모기업의 규모(중소기업 vs 대기업)는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모기업의 규모보다는 해당 현지법인의 특성이 노동생산성에 더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수출이나 관계사 매출은 노동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시장 내에는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지법인의 중국에 있는 세계기업들에 대한 중간재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출비중이 생산성에 중요하지 않게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근거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관계사로부터 매입이나 현지(중국)로부터 매입도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2. 연구결과의 시사점

- 중국내의 영업환경이 최근에 들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가됨.
 - 기업의 영업연도가 길수록 학습효과가 감소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함.

- 이와 같이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중국에서는 신축적인(flexible) 경영과 높은 현지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미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정보를 민간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중국투자의 실패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중국내 지역별로 진출업종과 기업규모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국의 내수시장 자체는 아직 미국이나 EU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 자체가 세계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필요가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에서 현지에 융합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현지화(glocalization)가 되어야 현지법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특히, 중국의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우리 현지법인들의 경쟁력은 현지화와 자본집약적인 생산공정 및 제품, 그리고 현지로부터 우수한 부품조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됨.

참고문헌

- 김기홍(2012), “외국인직접투자(FDI)로부터 경제적 효과-무역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37(1): 1-23.
- 김대영·이시영(2012),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중국 FDI 입지결정 요인 및 데모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17(4): 163-187.
- 김보인·신만수(2010), “한국 대중국 투자 성과 결정요인: 현지화의 조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중경상연구」, 9(1): 5-26.
- 박문수(2009), 「서비스산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과 시사점」, KNET 산업경제분석 연구보고서.
- 박석호·김호남(2012), “조선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변화와 그 결정요인”,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8(2): 155-177.
- 이용진·유성민(2012), “한국기업의 중국법인에서 국제인사관리정책과 노동생산성간의 관계: 본사인력의존과 현지선행경영역량의 조절 효과검증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16(1): 153-176.
- 이윤수(2011), “지역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재배분의 역할: 미국제조업 산업체 단위자료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13(1): 5-25.
- 장진숙, 지홍민(2011), “증권산업에서의 규모와 생산성”, 「생산성논집」, 25(2): 289-311.
- 정선영(2011), “정보통신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기술적 효율성을 감안한 접근방법”, 「경제학연구」, 59(1): 25-53.
- 정세은·도이야스히로(2012), “동아시아 주요 8개국 제조업의 산업구조 및 생산성 수렴”, 「동북아경제연구」, 24(2): 355-385.
- 하병기·이상학(2011),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구조와 투자대상국별 투자 결정요인”, 「입법과 정책」, 3(2): 75-98.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통계자료.
- 함정오(2012), “재중 한국계 외자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tras, P. and S. Yeaple(2013), “Multinational Firms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a working paper.
- Amity, M. and S. Wei(2006), “Service Offshoring and Productivity: Evidence from the US”, NBER Working Paper #11926.
- Buckley, P., Clegg, J. and C. Wang(2002), “The Impact of Inward FDI on the Performance of Chinese Manufacturing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3(4): 637-655.
- Chang and Xu(2008), “FDI and Technology Spillovers in China”, a working paper.
- Gimma, S. and H. Gorg(2004), “Outsourcing, Foreign Ownership, and Productivity: Evidence from UK Establishment-Level Dat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2(5): 817-832.
- Javorcik, B.(2004),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In search of spillovers through backward linkages”, *American Economic Review*, 94(3): 605-627.
- Kasahara, H. and B. Lapham(2008), “Productivity and the Decision to Import and Export: Theory and Evidence”, CESifo Working Paper Series #2240.
- Lin, S. and A. Ma (2008), “Outsourcing and Productivity: Evidence from Korean Data”, *Journal of Asian Economics*, 23(1): 39-49.
- Liu, B. and A. Tung(2005), “Export Outsourcing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Taiwanese Exporting Firms”, a working paper.
- Marin, D.(2006), “A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Europe: Outsourcing and Offshoring to Eastern Europe”,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4(2-3): 612-622.
- Meyer and Sinani(2009), “When and where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generate positive spillovers? A meta-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0(7): 1075-1094.
- Olsen, K.(2006), “Productivity Impacts of Offshoring and Outsourcing: Review”, STI Working Paper.

- Onuh, W., Zhang, X. and Y. Lee(2011), "Outsourcing and Labor Productivity: Evidence from Firms in Philippine Economic Zone in Cavite, Philippine", *Journal of Business and Policy Research*, 6(3): 1-18.
- Wang, C. and Z. Zhao(2008), "Horizontal and vertical spillover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ese manufacturing", *Journal of Chinese Economic and Foreign Trade Studies*, 1(1): 8-20.

• 저자약력 •

이시영

- 미국 Colgate University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 (현) 중앙대학교 경제경영학과 교수

이재민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졸업
-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어바나샴페인) 경제학 박사
- (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상학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뉴욕주립대(버팔로) 경제학 박사
- (현)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대영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현) 중앙대학교 강사

하병기

-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 경제학 박사
- (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책자료 2013-186

한국기업 중국 현지법인의 생산성 연구

인쇄일 2013년 9월 27일

발행일 2013년 9월 30일

발행인 김도훈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6-0001호

주 소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전 화 02-3299-3114

팩 스 02-963-8540

문 의 자료·편집팀 02-3299-3151

인쇄처 평강기획인쇄

값 5,000원

ISBN 978-89-5992-550-6 93320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제를 금합니다.